

여수시 ‘전남·광주 통합’ 5대 핵심 과제 정부 건의

산단 지원·글로벌 관광특구 지정·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통합 실무 기구에 입장 반영 방침...지역사회 의견 수렴도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관련해 통합의 동등한 주체로서 공동 성장 기반을 담보할 ‘5대 핵심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특정 지역 중심의 일방적 구조 개편이 아닌, 모든 지역이 고루 이익을 나누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와 병행해 여수시를 비롯한 동부권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과제’를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5가지 핵심 과제는 ▲여수산단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 등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광양만권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동부권 신산업 및 제조업 거점 명확화 ▲한반도 KTX 신설 등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여

수’의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등 세계 해양관광 및 MICE 거점 도약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여수 이전 등 수산산업 전략 거점 육성 및 균형 배치 등이다.

시는 이번엔 마련된 5대 과제를 토대로 향후 구성될 행정통합 실무 기구에 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는 과거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한 ‘3려 통합’을 이뤄낸 자치 분권의 상징적 도시”라며 “이번 행정통합이 여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곳곳 숨겨진 명소 ‘마을관광지도’로 제작

읍·면별 지역 특성·동선 등 맞춤 지도...여행 길잡이 역할 기대

고흥군이 지역 곳곳에 숨겨진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읍면 마을관광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의 시선에서 읍·면이 주체가 되어 직접 관광자원을 기획·발굴·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각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담아내고, 실제 여행객의 동선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로 제작할 예정이다.

지도에는 기존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명소, 현지인이 즐겨 찾는 노포, 산책로와 생활문화 공간 등 ‘진짜 고흥’의 일상이 담긴 장소들이 함께 수록된다. 또한 맛집·카페 정보와 체험시설, 교통 안내 등 실용적인 정보도 충실히 구성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읍면 자율 제작 방식을 도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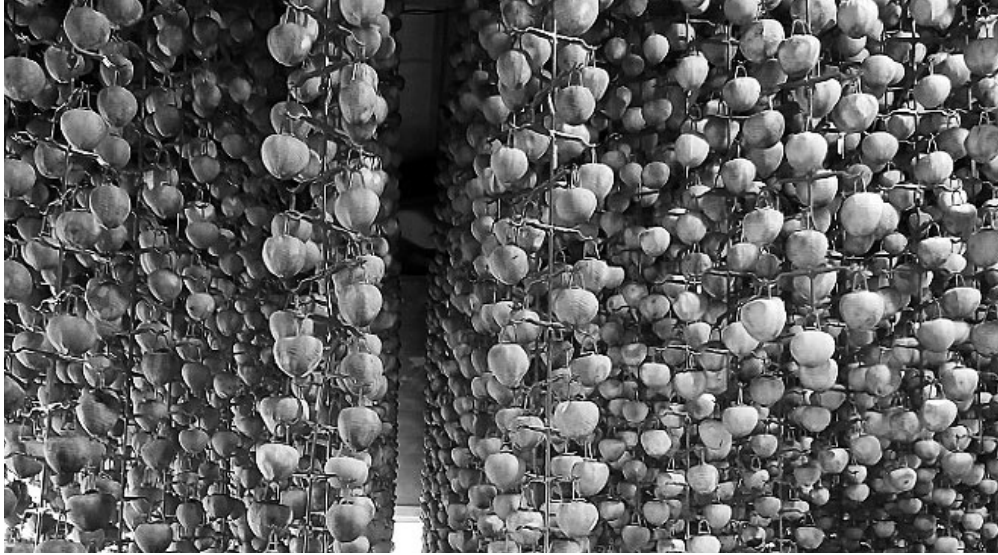
지역별 개성과 색채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이를 통해 고흥 관광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연계 관광을 활성화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고흥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추천한 장소들이 모여 고흥만의 이야기가 담긴 지도가 완성될 것”이라며 “마을관광지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고흥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여행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순천시, 고소득 7대 전략작목 키운다

오이·복숭아·꽃감 등 18억 투입 시설 하우스 등 지원



순천시 7대 고소득 전략작목 중 하나인 ‘꽃감’.

순천시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시장 경쟁력이 높은 ‘고소득 전략작목 7대 품목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육성 품목은 오이, 미나리, 딸기묘, 복숭아, 참다래, 꽃감, 조기해썬 등 총 7개 품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지역 특화 경쟁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사업은 2016년 연소득 1억원 이상 94 농가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6 농가를 육성했다. 2026년에는 205 농가 육

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시설하우스 및 장비 현대화, 과수 품종갱신 및 농기자재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차광막, 차열망 등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품목별 특성과 농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소득 농가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희망농가는 오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순천시 친환경농업과(061-749-8718)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수행·정진으로 빛은 사경 작품 감상

화엄사전통사경원 회원전...다음 달 28일까지 화엄사정보박물관

화엄사전통사경원이 ‘제4회 화엄사전통사경원 회원전’을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화엄사 정보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원전은 화엄사전통사경원 회원들이 그동안 수행과 정진을 통해 완성한 사경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불교 수행이자 예술 행위로 이어져 온 화엄사경의 전통과 정신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다.

화엄사경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 사경 수행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 불법을 새기는 수행 방식이다.

전시에는 정제된 필력과 장엄한 구성의 사경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며, 사경을 통해 드러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화엄 사상의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관람객들에게 마음을 돌아보고 사유의 시간을 갖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화엄사전통사경원 사경회장은 “전시되는 작품을 통하여 불법(佛法)의 지혜와 자비를 더 널리 전하고, 사경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빛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배알도 별빛야영장’ 민간 운영자 공개입찰



배알도 전경.

광양시, 22일 까지 입찰서 접수

광양시가 ‘배알도 별빛야영장’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입찰 대상인 배알도 별빛야영장은 배알도 수변공원에 조성된 시설로, 총 1만4638㎡ 규모의 부지에 카라반 10대를 포함한 캠핑사이트 100면, 화장실·샤워장·개수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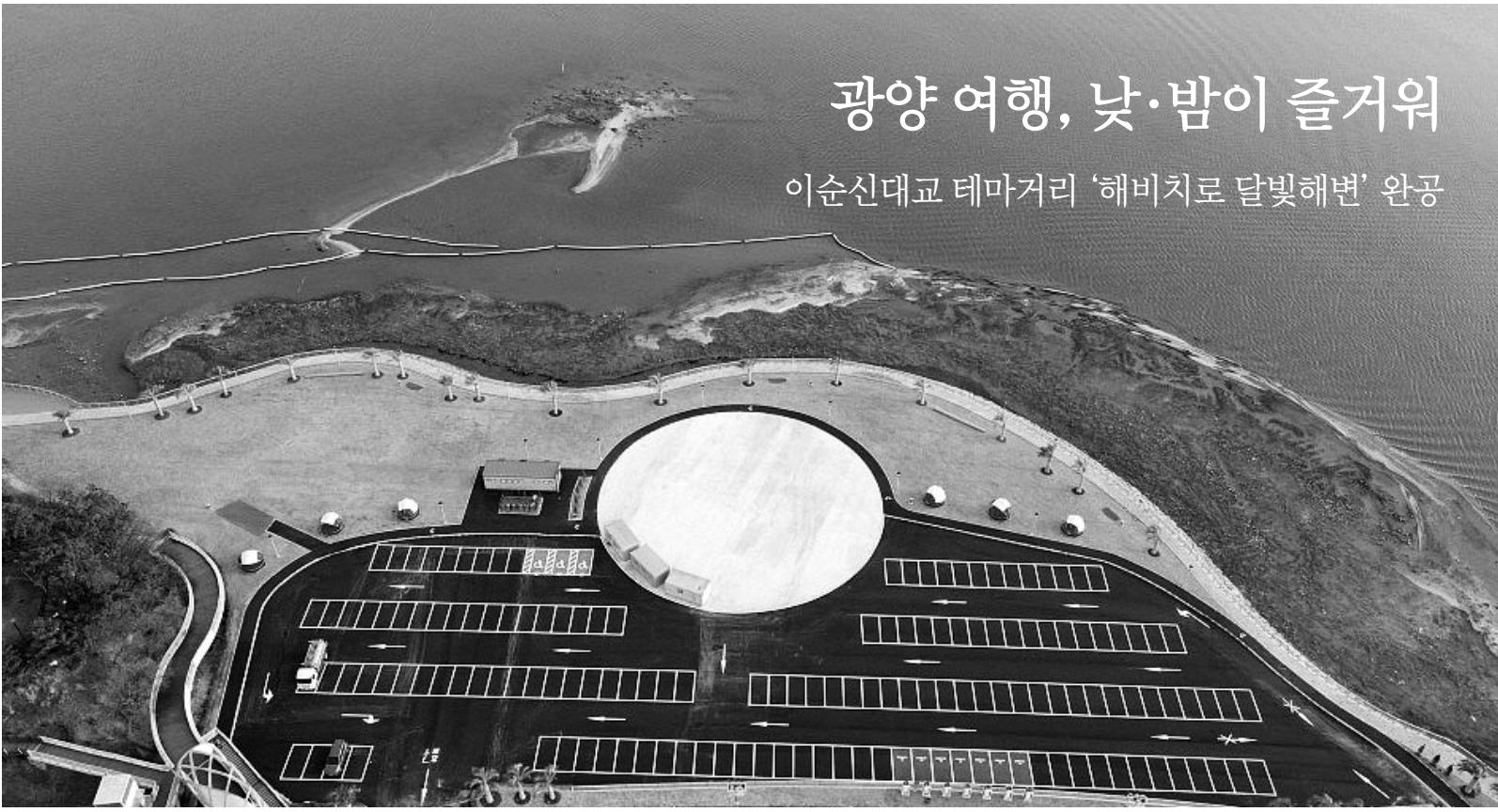
사용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입찰 최저가는 연간 2589만6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입찰 참가 희망자는 1월19일 오후 2시, 관리사

무소(광양시 명당길 86)에서 열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미참석 시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입찰서 접수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며, 개찰은 23일 오전 10시 광양시 관광과 입찰 집행관 PC에서 실시된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야영장 운영 경력 6개월 이상인 광양시 거주 개인 또는 단체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야영장업 등록 등 관련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되며,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누리집 또는 광양시 관광과(061-797-3363)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해비치로 달빛해변’

광양의 도심 수변공간 ‘해비치로 달빛해변’이 18개월만에 완공됐다.

광양시가 지난 2024년 6월부터 추진해 온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삼화섬 인근 공유수면 1만5000㎡를 매립하고,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해 ‘해비치로 달빛해변’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바다와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차장 151면을 확보했으며, 버스킹 공연장 4개소와 푸드트럭존을 조

성해 문화와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복합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바다와 맞닿은 녹지공간에는 시 최초로 야자수를 식재하고, 넓은 잔디와 현무암 담장을 조성해, 기존의 참나무류 교목 중심 조정에서 벗어나 이국적인 공간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용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감성적인 공간이 생겨 행복하다”, “매일 운동하며 찾고 싶은 곳”이라며 일상 속에서 휴식과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만족감을 나타냈다.

광양시는 해비치로 달빛해변 조성이 관광객 유치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향

후 운영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연중 정기적인 푸드트럭 운영과 버스킹 공연이 가능하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야간 모두 활력이 넘치는 수변공간으로 운영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바다와 휴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수변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중마동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걷기로 건강 챙기고 상품권 실속 챙기고

보성군 ‘소소한 걷기 챌린지’ 목표 달성자에 지역상품권 등 증정

보성군이 올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활용 비대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소소한 걷기 챌린지’를 연중 운영한다.

‘소소한 걷기 챌린지’는 일상생활속 걷기 실천을 정착시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보건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홍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강 증진 사업이다.

군은 챌린지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보성사랑상품권을 비롯해 생활용품, 구강용품, 운동용품, 텀블러 등 소정의 물품을 제공해 자발적인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령별 신체 특성을 고려해 달성 기준을 세분화했다. 70세 미만은 20일간 15만보 걷기(1일 최대 8000보 인정), 70세 이상은 20일간 12만보 걷기(1일 최대 7000보 인정)로 목

표를 차등 적용해 실질적인 건강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557명으로, 2025년 12월 30일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5110명, 참여자의 일평균 걸음 수는 6906보로 집계됐다.

또한, 2025년 만족도 조사 결과 챌린지 달성률은 74%, 체질량지수(BMI) 개선율은 62.5%, 연평균 걷기 실천율은 53.6%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역시 92.8%로 높게 평가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모바일 걷기 챌린지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 농업인 감염병 예방 교육

곡성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연계해 호흡기 감염병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 시범을 통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내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를 안내했다. 농번기 공동 작업일 등으로 접촉이 잦은 농업인은 개인위생 관리와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찌꺼기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이 없는 긴 작업복과 모자 착용하기, 옷과 신발 등에 기피제 뿌리기, 야외활동 후 입었던 옷은 분리·세탁하기, 바로 샤워하기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